

# 대전 · 충남지역 치과위생사의 피로자각증상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민우, 김영숙<sup>1)</sup>

대전보건대학, <sup>1</sup>전북과학대학 치위생과 외래강사

색인: 직무만족도, 치과위생사, 피로자각증상

신민우 : 보건학 석사 외래강사

김영숙 : 보건행정학 석사 외래강사

연락처: 신민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1동 갈마아파트 202-703 (우302-755)

전 화: 042-536-6050 휴대폰: 016-446-6050 E-mail: hi-mw@hanmail.net

# 대전 · 충남지역 치과위생사의 피로자각증상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색인: 직무만족도, 치과위생사, 피로자각증상

#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의료서비스가 의료인의 시각에 의해 평가되었던 것이 환자의 시각을 인식하고, 중요성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들은 고객인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전략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원산업이 소비자 주도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만족 문제는 병원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고객만족은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강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경영은 고객만족의 바탕이 되고 고객만족의 행동이 주체가 되는 직원의 만족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sup>2)</sup>.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는 유쾌감 혹은 좋은 정서 상태<sup>3)</sup>로 임금이나 관리, 직무내용 등 직무조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개인의 직무가치 신념들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의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sup>.

또한 자기 직무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직무특성이 다양하고, 업무가 명확하며, 자율성이 있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이다<sup>5)</sup>. 이러한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요구나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직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up>6)</sup>. 그러나 McClelland<sup>7)</sup>은 직업에서의 보수와 같은 외적 환경요인 보다 내적 환경요인 직업에 대한 책임감, 인정, 교육적 기회 등의 심리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인간관계에 관한 요소 즉 자아실현이라든지 직업적인 자율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학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치과의료기관은 치료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중소형의 치과위원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복잡한 인간관계, 환자수의 증가, 고도의 긴장감과 주의력, 과중한 업무량, 불분명한 업무의 분업화 등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sup>8)</sup>. 이러한 스트레스는 조직 내 종사하는 근로자나 관리자들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피로이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한다<sup>9)</sup>.

양<sup>10)</sup>의 연구에서 피로는 고단하다는 주관적 느낌이 들면서 능률이 떨어지고, 생체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 및 신경 감각적 피로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Klump<sup>11)</sup>는 피로는 거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나 치료와 연관되어 발생하며,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정상시와는 달리 과다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질병의 첫 증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고<sup>12)</sup>의 연구에서는 피로가 축적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점으로는 일상생활능력의 약화와 기분(mood)의 저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삶의 질까지도 저하시킨다고 하였으며, 송<sup>13)</sup>의 연구에서 피로는 업무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업무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며, 직업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고, 의욕상실, 환자에 대한 무관심, 불친절 등을 야기하므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자신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질병을 얻게 되거나 이직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및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건강과 치과 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1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전·충남 소재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274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치과위생사들이 직접 설문내용을 기록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 10문항, 직무특성 9문항, 직무만족도(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36문항, 피로자각증상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 정도, 체질량지수, 1일 수면시간, 운동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아침식사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등 10개 요인을 조사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신장과 체중 치로부터  $[\text{체중(kg)} / \text{신장(m)}^2]$ 의 공식으로 구하고, 이를 3단계 즉, 18.5 이하(저체중), 18.5~24.9(정상), 25.0 이상(과체중)으로 구분하였으며, 1일 수면시간은 7~8시간은 적당한 수면 군, 7시간 이하 또는 8시간 이상은 부적당한 수면 군으로 구분하였다.

#### 2) 직무특성

직무특성은 근무경력, 월 급여, 1일 근무시간, 업무의 만족도,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자율성, 급여의 만족도, 직장 내 대인관계 등 9개 요인을 조사하였다.

#### 3) 직무만족 측정도구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박<sup>14)</sup>이 사용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 측정은 총 36문항으로 자율성 9문항, 인간관계 7문항, 직업적 궁지 7문항, 근무환경 9 문항, 보수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측정도구는 Likert의 5점 척도에 따라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검정결과 Cronbach's  $\alpha=0.808$ 이었다.

#### 4) 피로자각증상의 측정도구

피로자각증상의 측정은 일본 산업위생학회 산업피로연구회<sup>15)</sup>에서 제안한 피로자각증상 30항목을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제Ⅰ항목 군; 졸리고 나른함(Dullness and sleepiness), 제Ⅱ항목 군; 주의집중 곤란(Difficulty in concentration) 및 제Ⅲ항목 군; 신체부위의 피로(Bodily projection of fatigue)로 각각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증상항목에 대한 지난 3개월간의 피로자각증상정도에 따라 “없음”, “때때로” 및 “항상”으로 응답하게 하여 각각 0, 1, 2의 점수를 주어 전 항목 및 각 특성 군별 소항목 군의 점

수를 합산한 후 응답자수로 나눈 평균가중점수를 산출하였다. 피로자각증상정도의 평가는 평균가중점수가 높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 일치도는 검정결과 Cronbach's  $\alpha=0.875$ 이었다.

### 2.3 자료 분석방법

자료는 SPSSWIN(ver.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과 직무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직무만족도 평균점수와 피로자각증상의 평균가중점수에 대한 항목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 test로 분석하였다.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점수 및 하위영역간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성적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 분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의 분포를 보면, 연령별로는 총 274명중 25세 이하군이 44.9%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이 78.1%이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 정도별로는 전문대학이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일 수면시간은 7~8시간(적당한 수면군)이 70.8%로 7시간이하 또는 8시간 이상(부적당한 수면군) 29.2%보다 많았다. 운동 여부별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군이 64.2%, 음주 여부별로는 음주군이 54.4%로 나타났고, 흡연 여부별로는 비흡연군이 9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아침식사 여부별로는 매일한다는 군 35.8%, 일주일에 2~3회 한다는 군 34.7%, 안한다는 군 29.6%이었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보통이라는 군 60.2%, 건강하다는 군 27.7%,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aily life style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umber	%
Age(year)		
≤25	123	44.9
26~30	101	36.9
31≤	50	18.2
Marital status		
Single	214	78.1
Married	60	21.9
Education		
Junior College	247	90.1
College & over	27	9.9
BMI		
Under weight	52	19.0
Normal	200	73.0
Over weight	22	8.0

Sleeping hours(/day)		
7~8	194	70.8
<7 or 8<	80	29.2
Regularly exercise		
Regularly	98	35.8
Irregularly	176	64.2
Alcohol drinking		
Yes	149	54.4
No	125	45.6
Smoking		
Yes	9	3.3
No	265	96.7
Having breakfast		
Everyday	98	35.8
2~3 times(/week)	95	34.7
Never	81	29.6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76	27.7
Moderate	165	60.2
Unhealthy	33	12.0
Total	274	100.0

### 3.2 직무특성 분포

직무관련 특성을 보면 근무경력별로는 2~5년 군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년 미만군 33.2%, 2년 미만군 24.5%의 순이었다. 월 급여별로는 100~150만원 미만이 55.5%를 차지하였고, 150~200만원 이 31.4%, 100만원 이하가 7.6%, 200만원 이상이 5.5%로 나타났다. 근무시간별로는 8시간 이상 근무가 79.9%, 업무의 만족도별로는 만족한다는 군이 59.9%, 업무의 성격은 단순하다고 응답한 군이 46.4%, 업무량별로는 적당하다는 군이 54.7%, 업무의 자율성에서는 자유롭다는 군이 55.8%의 분포를 보였다. 급여의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군이 35.4%,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이 64.6%를 차지했다.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이 89.4%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군 10.6%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2>.

Table 2. Job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umber	%
Clinical career(year)		
<2	67	24.5
2~5	116	42.3
6≤	91	33.2
Monthly income(10 <sup>4</sup> Won)		
<100	21	7.6
100~150	152	55.5
150~200	86	31.4
200≤	15	5.5
Hours of duty		
<8	55	20.1

8≤	219	79.9
Job satisfaction		
Satisfied	164	59.9
Unsatisfied	110	40.1
Character of the work		
Simple	127	46.4
Complicated	147	53.6
Duty amount		
Adequate	150	54.7
Much	124	45.3
Job autonomy		
Autonomy	153	55.8
None autonomy	121	44.2
Salary satisfaction		
Satisfaction	97	35.4
Unsatisfaction	177	64.6
Interpersonal relation at work place		
Satisfied	245	89.4
Unsatisfied	29	10.6
Total	274	100.0

### 3.3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 3.3.1 직무만족도 하위영역별 점수분포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 점수는 총 평균점수 5.00점 만점 중 3.12±0.46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인간관계영역이 3.50±0.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업적 긍지영역 3.16±0.62점, 근무환경영역 3.03±0.62점, 자율성영역이 3.04±0.64점의 순이었으며, 보수영역은 2.75±0.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3>.

Table 3. Distribution of job satisfaction scores by sub-domains of subjects

sub-domains	Number of item	Range	Mean±SD
Autonomy	9	1 ~ 5	3.04±0.64
Interpersonal relationship	7	1 ~ 5	3.50±0.64
Job pride	7	1 ~ 5	3.16±0.62
Work environment	9	1 ~ 5	3.03±0.62
Pay	4	1 ~ 5	2.75±0.78
Total	36	1 ~ 5	3.12±0.46

#### 3.3.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별 직무만족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31세 이상군에서, 기혼군보다는

미혼군이 교육 정도별로는 4년제 대학 이상이 전문대 졸업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체질량지수별로는 정상인군에서, 1일 수면시간별로는 7~8시간(적당한 수면군)에서, 운동 여부별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에서, 음주 여부별로는 음주군에서, 흡연 여부별로는 흡연군에서, 아침식사 여부별로는 1주일에 2~3회 한다는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하다는 군에서 직무만족도 점수가 높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4>.

Table 4. Mean scores of job satisfac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aily life styles (Unit : Mean±SD)

Variable	Mean±S.D	P-value
Age(year)		0.577
≤25	3.13±0.41	
26~30	3.08±0.52	
31≤	3.15±0.45	
Marital status		0.437
Single	3.13±0.45	
Married	3.08±0.50	
Education		0.746
Junior College	3.11±0.46	
College & over	3.15±0.45	
BMI		0.446
Under weight	3.08±0.45	
Nomal	3.14±0.47	
Over weight	3.02±0.40	
Sleeping hours(/day)		0.566
7~8	3.13±0.48	
<7 or 8<	3.09±0.43	
Regularly exercise		0.206
Regularly	3.17±0.46	
Irregularly	3.09±0.47	
Alcohol drinking		0.458
Yes	3.14±0.48	
No	3.09±0.44	
Smoking		0.835
Yes	3.15±0.30	
No	3.12±0.47	
Having breakfast		0.429
Everyday	3.11±0.48	
2~3 times(/week)	3.16±0.47	
Never	3.07±0.43	
Subjective health status		0.496
Healthy	3.17±0.50	
Moderate	3.09±0.45	
Unhealthy	3.13±0.43	
Total	3.12±0.46	

### 3.3.3 직무특성별 직무만족도

직무특성별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근무경력이 짧을수록(P=0.032)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P=0.000), 업무량이 적당하다는 군(P=0.000) 및 업무가 자유롭다는 군(P=0.000), 보수에 대해 만족한다



는 군(P=0.000), 직장 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군(P=0.000)에서 그렇지 않다는 군에 비해 직무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월 급여, 1일 근무시간, 업무의 성격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Table 5. Mean scores of job satisfaction by job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Variable	Mean±SD	P-value
Clinical career(year)		0.032
<2	3.22±0.40	
2~5	3.13±0.46	
6≤	3.03±0.49	
Monthly income(10 <sup>4</sup> Won)		0.284
<100	3.19±0.39	
100~150	3.14±0.47	
150~200	3.04±0.44	
200≤	3.21±0.55	
Hours of duty		0.115
<8	3.21±0.50	
8≤	3.10±0.45	
Job satisfaction		0.000
Satisfied	3.29±0.41	
Unsatisfied	2.86±0.41	
Character of the work		0.054
Simple	3.06±0.46	
Complicated	3.17±0.46	
Duty amount		0.000
Adequate	3.24±0.43	
Much	2.97±0.46	
Job autonomy		0.000
Autonomy	3.24±0.43	
None autonomy	2.96±0.45	
Salary satisfaction		0.000
Satisfaction	3.36±0.41	
Unsatisfaction	2.99±0.44	
Interpersonal relation at work		0.000
Satisfied	3.15±0.46	
Unsatisfied	2.83±0.40	
Total	3.12±0.46	

### 3.4 연구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점수 비교

#### 3.4.1 피로자각증상 항목군별 점수비교

연구대상 치과위생사들의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를 보면, 총 60점 만점 중 27.66± 10.90점으로 나타났으며, 소항목 군별로는 I 항목군인 졸리고 나른함이 11.07±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II 항목군인 주의집중 곤란이 8.52±4.22점, III 항목군인 신체부위의 피로가 8.06±4.25점의 순위로 나타났다<표 6>.

Table 6. Distribution of fatigue symptoms scores by sub-domains of subjects

Group	Number of item	Range	Mean±SD
Group I (Dullness and sleepness)	10	0 ~ 20	11.07±4.05
Group II (Difficulty in concentration)	10	0 ~ 20	8.52±4.22
Group III (Bodily projection fatigue)	10	0 ~ 20	8.06±4.25
Total	30	0 ~ 60	27.66±10.90

### 3.4.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별 피로자각증상점수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를 보면, 연령별로는 I 항목군인 (졸리고 나른함)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p= 0.000),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p=0.014)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결혼상태별에서도 I 항목군인 (졸리고 나른함)에서 기혼군보다는 미혼군에서 (p=0.002), 교육 정도별로는 전문대졸업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4).

일상생활습관별로는 아침식사 여부에서 아침식사를 안한다는 군이 I 항목군(졸리고 나른함)(p=0.001), 일주일에 2~3회 한다는군이 III항목군(신체부위의 피로)(p=0.023) 및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p=0.005)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I 항목군(졸리고 나른함)(p=0.000), II 항목군(주의집중 곤란)(p=0.000), III항목군(신체부위의 피로)(p=0.000) 및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p=0.000)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밖의 체질량지수나 수면시간, 규칙적인 운동 여부, 음주, 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Table 7. Distribution of fatigue symptoms group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daily life styles (Unit : Mean±SD)

Variable	Fatigue symptoms			Total
	G I	G II	G III	
Age(year)				
≤25	12.09±3.87	8.79±4.49	8.34±4.60	29.24±11.35
26~30	10.85±3.51	8.47±3.99	8.25±3.94	27.58± 9.71
31≤	9.00±4.65	7.98±3.98	6.96±3.84	23.94±11.33
P-value	0.000	0.509	0.127	0.014
Marital status				
Single	11.47±3.93	8.54±4.37	8.20±4.41	28.22±11.01
Married	9.63±4.18	8.48±3.64	7.55±3.63	25.66±10.34
P-value	0.002	0.924	0.293	0.109
Education				
Junior College	11.27±4.06	8.64±4.23	8.15±4.25	28.07±10.98
College & over	9.25±3.53	7.44±4.06	7.22±4.22	23.92± 9.59
P-value	0.014	0.160	0.281	0.061
BMI				
Under weight	11.44±4.28	8.90±4.88	8.51±4.46	28.86±11.99
Nomal	10.95±4.03	8.49±4.18	7.85±4.27	27.34±10.97
Over weight	10.90±3.81	7.95±2.66	8.90±3.53	27.77± 7.19
P-value	0.764	0.662	0.375	0.669

Sleeping hours(/day)				
7~8	11.21±4.04	8.47±4.34	8.09±4.43	27.78±11.31
<7 or 8<	10.73±4.07	8.65±3.93	7.97±3.82	27.36± 9.92
P-value	0.380	0.762	0.828	0.769
Regularly exercise				
Regularly	10.75±4.38	8.13±4.24	8.24±4.34	27.13±11.46
Irregularly	11.25±3.86	8.74±4.22	7.98±4.23	28.00±10.66
P-value	0.327	0.243	0.635	0.529
Alcohol drinking				
Yes	11.30±4.08	8.84±4.28	8.26±4.51	28.41±11.40
No	10.80±4.00	8.15±4.13	7.81±3.92	26.76±10.25
P-value	0.308	0.176	0.382	0.213
Smoking				
Yes	9.55±4.03	7.44±3.84	9.00±3.87	26.00± 8.00
No	11.12±4.05	8.56±4.23	8.03±4.27	27.72±10.99
P-value	0.254	0.434	0.503	0.642
Having breakfast				
Everyday	9.86±4.15	7.82±4.44	7.15±4.05	24.84±11.09
2~3 times(/week)	11.91±3.69	9.04±3.90	8.78±4.23	29.74±10.15
Never	11.54±4.02	8.77±4.24	8.30±4.36	28.62±10.95
P-value	0.001	0.111	0.023	0.005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9.51±4.16	7.31±4.23	6.38±3.98	23.21±10.63
Moderate	11.49±3.91	8.58±4.05	8.38±4.17	28.47±10.59
Unhealthy	12.54±3.44	11.03±4.01	10.30±3.94	33.87± 9.18
P-value	0.000	0.000	0.000	0.000
Total	11.07±4.05	8.52±4.22	8.06±4.25	27.66±10.90

G I : Dullness and sleepness

G II : Difficulty in concentration

G III : Bodily projection of fatigue

### 3.4.3 직무특성별 피로자각증상점수 비교

직무특성에 따른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를 보면, 근무경력별로는 I 항목군(졸리고 나른함)( $p=0.000$ ), II 항목군(주의집중 곤란)( $p=0.060$ ), 및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 $p=0.032$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월 급여의 경우 급여가 낮을수록 I 항목군(졸리고 나른함)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p=0.000$ ),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 $p=0.007$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업무의 만족도별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I 항목군(졸리고 나른함)( $p=0.024$ ), II 항목군(주의집중 곤란)( $p=0.000$ ) 및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 $p=0.001$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업무량별로는 업무가 많다는 군에서 I 항목군(졸리고 나른함)( $p=0.012$ ), II 항목군(주의집중 곤란)( $p=0.001$ ) 및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 $p=0.006$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업무의 자율성별로는 자유롭지 못한 군이 II 항목군(주의집중 곤란)( $p=0.014$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급여에 대한 만족도별로는 II 항목군(주의집중 곤란)에서 만족한다는 군보다 불만족한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p=0.003$ ), 직장 내 대인관계별로는 I 항목군(졸리고 나른함)( $p=0.047$ ), II 항목군(주의집중 곤란)에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불만족한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p=0.000$ ),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 $p=0.027$ )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1일 근무시간, 업무의 성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

Table 8. Distribution of fatigue symptoms group by job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Variable	Fatigue symptoms			Total
	G I	G II	G III	
Clinical Career(year)				
≤1	11.86±3.66	7.62±4.30	8.05±4.70	27.55±10.89
2~5	11.74±3.91	9.14±4.33	8.56±4.26	29.45±10.82
6≤	9.63±4.15	8.40±3.92	7.41±3.84	25.46±10.72
P-value	0.000	0.060	0.155	0.032
Monthly income(10 <sup>4</sup> Won)				
<100	11.23±3.56	8.14±4.32	8.09±5.26	27.47±11.69
100~150	11.82±3.80	8.69±4.42	8.30±4.34	28.82±10.73
150~200	10.43±4.11	8.67±3.80	8.11±3.83	27.22±10.49
200≤	6.93±4.02	6.60±4.17	5.20±3.38	18.73±10.55
P-value	0.000	0.306	0.062	0.007
Hours of duty				
<8	10.90±4.16	7.92±4.75	8.34±4.64	27.18±11.84
8≤	11.11±4.03	8.68±4.07	7.99±4.16	27.78±10.68
P-value	0.738	0.238	0.582	0.714
Job satisfaction				
Satisfied	10.62±4.16	7.50±4.07	7.76±4.34	25.88±10.98
Unsatisfied	11.74±3.80	10.06±3.97	8.50±4.09	30.31±10.27
P-value	0.024	0.000	0.155	0.001
Character of the Work				
Simple	10.88±4.01	8.98±4.05	7.92±4.01	27.79±10.51
Complicated	11.23±4.10	8.13±4.33	8.17±4.46	27.55±11.27
P-value	0.469	0.097	0.632	0.854
Duty amount				
Adequate	10.51±4.00	7.78±3.95	7.73±4.31	26.02±10.65
Much	11.75±4.01	9.43±4.37	8.45±4.16	29.64±10.92
P-value	0.012	0.001	0.160	0.006
Job autonomy				
Autonomy	10.73±4.25	7.97±4.26	8.08±4.53	26.79±11.51
None autonomy	11.50±3.74	9.23±4.07	8.03±3.90	28.76±10.02
P-value	0.117	0.014	0.920	0.136
Salary satisfaction				
Satisfaction	10.76±4.04	7.51±4.14	7.92±4.50	26.20±11.15
Unsatisfaction	11.24±4.05	9.08±4.17	8.13±4.12	28.46±10.71
P-value	0.349	0.003	0.700	0.102
Interpersonal relation at work				
Satisfied	10.90±3.87	8.22±3.98	8.03±4.16	27.16±10.43
Unsatisfied	12.48±5.18	11.10±5.29	8.31±5.05	31.89±13.78
P-value	0.047	0.000	0.740	0.027
Total	11.07±4.05	8.52±4.22	8.06±4.25	27.66±10.90

G I : Dullness and sleepness

G II : Difficulty in concentration

G III : Bodily projection of fatigue

### 3.5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도점수와 피로자각증상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체 직무만족도점수와 피로자각증상점수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0.198$ ,  $p=0.000$ ),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만족도 하위영역별 점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피로자각증상 소항목 군별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9>.

Table 9.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fatigue symptom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J-I	1.00								
2. J-II	.333**	1.00							
3. J-III	.484**	.511**	1.00						
4. J-IV	.460**	.442**	.517**	1.00					
5. J-V	.278**	.210**	.202**	.452**	1.00				
6. J-total	.767**	.646**	.775**	.825**	.453**	1.00			
7. G-I	-.182**	-.012	-.085	-.187**	-.113	-.172**	1.00		
8. G-II	-.217**	-.108	-.202**	-.292**	-.106	-.274**	.662**	1.00	
9. G-III	-.022	-.007	-.096	-.124*	-.013	-.073	.651**	.597**	1.00
10.G-total	-.160**	-.049	-.147*	-.231**	-.077	-.198**	.882**	.866**	.863**

\*:  $p<0.05$  , \*\*:  $p<0.01$

1. J-I : Scores of autonomy
2. J-II : Scor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3. J-III : Scores of job pride
4. J-IV : Scores of work environment
5. J-V : Scores of pay
6. J-total : Total scores of job satisfaction
7. G-I : Scores of dullness and sleepness
8. G-II : Scores of difficulty in concentration
9. G-III : Scores of bodily projection of fatigue
10. G-total : Total scores of fatigue symptoms

### 3.6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직무만족도 및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도점수 및 피로자각증상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무년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의 양 및 급여의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고,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2.9%이었다<표 10>.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교육정도 점수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0.8%이었다<표 11>.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influence of factors on job satisfaction scores

Variable	B	SE	Beta	t	p-value	R <sup>2</sup>
Clinical Career	-0.154	0.060	-0.249	-2.572	0.011	0.329
Job satisfaction	-0.250	0.062	-0.263	-4.067	0.000	
Duty amount	-0.112	0.055	-0.120	-2.030	0.043	
Salary satisfaction	-0.209	0.057	-0.215	-3.652	0.000	
(Constant)	4.185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influence of factors on fatigue symptom scores

Variable	B	SE	Beta	t	p-value	R <sup>2</sup>
Subjective health status	5.370	1.036	0.301	5.184	0.000	0.208
Education	-4.636	2.135	-0.127	-2.172	0.031	
(Constant)	26.345					

#### 4. 총괄 및 고안

치과의료기관은 조직 내에서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도 과거의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오늘날 예방, 교육, 기술, 경영자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되는 등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고<sup>16)</sup>,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은 정신적, 정서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피로자각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피로에 대한 노출은 직무능률을 감소시켜 양질의 치과서비스를 제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방안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건강과 치과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평균평점 5.00점 만점 중 3.12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하면 최<sup>17)</sup>의 3.38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박<sup>14)</sup>의 3.04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홍<sup>18)</sup>의 3.14점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는 중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위 영역별 직무만족도 순위는 인간관계가 3.5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직업적 긍지, 근무환경, 자율성, 보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직무만족도 도구를 사용<sup>14)</sup> 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박<sup>8)</sup>, 홍<sup>18)</sup>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직무만족영역에 있어 인간관계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개인적으로 분리된 업무가 아닌 팀의 연결된 업무임을 치과위

생사들이 인식하여 업무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수에서 불만족으로 나타났고, 최<sup>17)</sup>, 박<sup>14)</sup>의 결과와 같았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량과 경력에 비해 적절한 보수체계가 아직도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부적당한 보수는 사기저하와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을 상실시키므로 업무량과 경력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와 보상 등으로 자기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연령, 결혼상태, 교육 정도, 체질량지수, 1일 수면시간, 규칙적인 운동 여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아침식사 여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따라서 직무만족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변수의 수에 비하여 응답자의 수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직무 특성별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최<sup>17)</sup>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고, 이는 과거에 비해 근무환경 등이 향상되었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공지와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나타나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최<sup>17)</sup>의 개인적 심성과 관련된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직업관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치과위생사가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 긍정적인 조직문화의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업무량에서는 적당하다는 군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과다한 업무량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업무량의 조절과 휴식은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의 자율성에서는 자유롭다고 응답한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력이 많을수록 숙련된 기술과 자신감이 증가되어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불러 올 수 있고, 따라서 치과의사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 많아져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박<sup>14)</sup>, 홍<sup>18)</sup>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된 근무 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급여의 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군에서 만족도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홍<sup>18)</sup>, 오<sup>19)</sup>의 결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업무량과 경력에 대한 적당한 보수의 개선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만족한다는 군에서 그렇지 않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sup>20)</sup>, 정<sup>21)</sup>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직장 내 원만한 대인관계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 못지않게 생산성에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상·하 동료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의존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들의 피로자각증상은 일본의 산업피로연구회<sup>15)</sup>에서 제안한 피로 자각 증상표를 사용하였다. 30문항의 증상을 3군으로 나누어 제Ⅰ항목 군; 졸리고 나른함(Dullness and sleepness), 제Ⅱ항목 군; 주의집중 곤란(Difficulty in concentration) 및 제Ⅲ항목 군; 신체부위의 피로(Bodily projection of fatigue)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그 발생 빈도수가 I>Ⅲ>Ⅱ의 형을 작업환경에 특징이 없는 일반형, I>Ⅱ>Ⅲ의 형을 정신작업이나 야간 작업형, Ⅲ>I>Ⅱ의 형을 육체 작업형이라 하였다<sup>22)</sup>. 본 조사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피로자각증상점수는 총점 60점 중 27.66로 나타났다. 증상별로는 I;졸리고 나른함>Ⅱ;주의집

중 곤란>Ⅲ;신체부위의 피로의 순서를 나타내어 정신작업이나 야간 작업형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진료지원의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환자와의 상담, 시간 약속제의 부담 등 정신적인 업무로 인한 피로 역시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연구대상이 다른 박<sup>23)</sup>, 이<sup>24)</sup>의 연구에서도 I>Ⅱ>Ⅲ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 중 연령이 낮을수록, 아침 식사습관별로 보면 일주일에 2~회 한다는 군이 높게 나타났고, 박<sup>23)</sup>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군에서 피로자각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피로는 일상생활의 능력을 저하시키며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sup>25)</sup> 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거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소유함에 따라 피로자각증상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직무특성에 따른 전체 피로자각증상점수 중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진료지원 등의 업무내용으로 인한 피로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김<sup>20)</sup>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월 급여별로는 급여가 적을수록 높은 피로자각증상점수를 보였고, 업무의 만족도별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피로자각증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업무량별로는 과중하다는 군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피로자각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과중한 업무량은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업무량의 조절과 분배,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군의 피로자각증상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치과업무가 직장의 상하·동료 간의 관계와 더불어 환자와의 원만한 관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무만족도 점수와 피로자각증상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도에는 근무경력, 업무의 만족도, 업무량, 급여의 만족도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로자각증상에는 교육정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직무환경을 개선한다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피로자각증상은 낮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전·충남지역의 일부 치과위생사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값의 변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치과위생사로의 확대해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도 및 피로자각증상 변수의 측정이 응답자의 주관적인 설문결과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측정값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보장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 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 론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74명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는 총 평균점수 5.00점 만점 중  $3.13 \pm 0.47$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인간관계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보수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별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무특성별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 업무량이 적당하다는 군, 업무가 자유롭다는 군, 보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 직장 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군에서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피로자각증상 평균 점수를 보면 총 60점 만점 중  $27.6 \pm 10.9$ 점으로 나타났고, 소항목군별로는 졸리고 나른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의집중 곤란, 신체부위의 피로의 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습관별 피로자각증상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아침식사습관이 불규칙한 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직무특성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월급여가 적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다는 군, 업무량이 많다는 군, 직장 내 대인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피로도 자각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3. 직무만족도 점수와 피로자각증상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체 직무만족도 점수와 피로자각증상 점수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0.198$ ,  $p = 0.000$ )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하위영역별 점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피로자각증상 소항목 군별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무경력, 업무의 만족도, 업무량 및 급여의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2.9%이었다.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종학력,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0.8%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일상생활습관 요인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 같은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직무환경의 개선을 가져온다면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피로자각증상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참고문헌

1. 이기효, 손준수, 양진선. 간호사의 직무관련요인과 환자만족 지향태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병원 경영학회. 97추계 학술대회. 1997
2. 공선표. 고객만족경영을 성공시키려면. 인사관리. 1994: 4-11
3. Locke EA.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In M.D. Dunnette(ed). Hand 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 Psychology. Chicago : Rand McNally. 1976;1300
4. 문혜영. 종합병원 간호사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5. Slavitt DB. Nursing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1978
6. 도복늬. 한국 간호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 중앙의학 1976
7. McClosky J. Organization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rate nurse reseach. 1973
8. 박은주.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9. 김신정. 산업장 근로자들의 산업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3
10. 양광희. 피로의 개념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996;7(2):270-278
11. Klump TG. Some thoughts on old patients. Med Times. 1976;104:87-93
12. 고병학. 중.고교 교사의 피로도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의대잡지. 1974;11(3):1038
13. 송말순. 수술실 간호원의 역할 스트레스, 소진 경험정도와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14. 박향숙. 치과위생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5. 日本産業衛生學會 産業疲勞研究會. 産業疲勞「自覺症狀しらべ」についての報告. 労働の科學. 1970;25(6):16-62
16. 강부월. 조직몰입도 인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17. 최은영.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애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8. 홍숙선. 대구광역시 소재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19. 오정숙. 한국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20. 김은숙. 군 간호 근무요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1. 정정희.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및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2. 告竹傳: 疲勞感の評定(第1報). 勞動科學 1969;45:422-432
23. 박영남.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교대근무와 수면문제 및 피로자각증상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4. 이해진, 김택준, 전정일, 구정완, 정치경. 약사의 피로자각증상. 대한산업의학회지. 1997;9(1):26-39.
25. 양광희. 피로의 개념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996;7(2):270-278

Abstract

# The Effects subjective fatigue symptoms To job satisfaction in daejon city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dental hygienists

Min-Woo Shin, Young-Suk Kim<sup>1</sup>

*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Sciences Collage*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Jeonbuk Sciences Collage*

key words : Job-satisfaction, Fatigue symptoms, Dental hygienis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mplaint rates of subjective fatigue symptoms and the degree of job-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ists based on their socio-demographic and job characteristics and to find out the factors related with subjective fatigue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The study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274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a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Daejon city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during the period between Jan. 5 and Feb. 11, 2007. They were ask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sking about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daily life styles, job satisfaction and subjective fatigue symptoms, and the major finding o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ww.kci.go.kr

1. The mean scores of job satisfaction were  $3.12 \pm 0.47$  of the total full scores(5.00), and the highest scores were in the sub-domai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lowest scores were pay. The scores of job satisfac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aily life styl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s, but in job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ose feeling satisfied with their job, those with appropriate amount of duty amount, those free of job autonomy, those feeling satisfied with their monthly income, satisfactory personal relations at work.
2. The mean scores of subjective fatigue symptoms were  $27.6 \pm 10.9$  of the total full scores(60.0), and the highest scores were in the sub-group of bodily projection of fatigue(Group III), and they were followed by difficulty in concentration(Group II), dullness and sleepiness(Group I) in their decreasing order of magnitude. The scores of job satisfac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aily life styl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group of lower age, the group of irregularly breakfast habit and the worse subjective health status. Based on job characteristics, the score of subjective fatigue symptom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ose group of lower clinical career and monthly income, those feeling unsatisfied with their job, those with inappropriate amount of duty amount, those satisfactory personal relations at work.
3. The correlation of subjective fatigue symptoms with job satisfac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 = -0.198$ ( $p = 0.000$ ), and job satisfaction were higher according to the lower subjective fatigue symptoms. The correlation among the scores of sub-domain of job satisfaction and the sub-group of subjective fatigue symptoms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4. The affecting factors of significance on job satisfaction included clinical career, duty amount, salary satisfaction,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32.9%. Those on subjective fatigue symptoms included the education and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20.8%.

When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job-satisfaction and the subjective fatigue symptom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job related factors than factor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aily life styles. In addition, if job environments of dental hygienist can improved, their job-satisfaction and subjective fatigue symptoms are suggested to be better.